

인원을 위한 요약 보고서

아시아 지역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늪에서 빠져나와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이 지역은 초기에는 매우 심각한 위기를 겪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위기의 핵심 국가들보다도 생산량이 더 크게 위축되었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는 요즈음에는 아시아 지역이 회복에 앞서가고 있다. 이러한 주목할 만한 회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경제 회복으로 아시아 지역 정책 입안자들이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가?

세계의 다른 지역들은 아직도 생산이 둔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부터 괄목할 만한 회복을 보임에 따라 일부 관찰자들 사이에는 이 지역이 세계 다른 지역들과는 “분리”된 지역이라는 관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제 1장에 설명된 바와 같이 회복을 이끈 배경의 힘에 대한 면밀한 연구 결과, 아시아 지역의 경기 회복의 주요인은 2008년 말 세계 무역과 재정의 갑작스런 붕괴 이후 정상화를 향한 복귀의 움직임이었음이 밝혀졌다. 국제 무역과 재정이 동결됨으로 인하여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아시아 지역의 과다 침체를 야기했던 것처럼 현재의 미국의 정상화는 아시아 지역에서 회복 국면에서도 확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08년 말에 경제 위기를 가장 심하게 겪었던 수출 주도적인 아시아 지역이 경제 활동의 재활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경기 회복을 이끈 또 하나의 요소는 신속하고 강력하며 종합적인 정책적 반응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반응은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재정 상태가 건실하며 신뢰성 있는 통화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기업과 은행의 재무구조가 튼실하다는 기본적인 조건들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러한 조건들은 정책 입안자들로 하여금 금리를 크게 인하하고 확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 그 결과 국내의 전반적인 수요가 민간 부문의 위축된 수요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미래는 어떠한가? 세계의 경제 조건들은 2010년에는 점진적인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회복은 느리게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IMF의 최근 예측 결과에 따르면 내년 G7 국가들의 생산량은 1¼ 퍼센트 정도만 상승하여 2009년 동안에 예상되는 손실의 절반 정도만 회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 국가들의 문제는 민간 부문 수요가 위기 의식으로 인해 위축 현상이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다. 가정 경제는 지출이 어려울 것이며 은행은 침체기간 동안 겪은 재무 구조의 상당한 손상을 복구하는데 주력하여야 하므로 여신이 어려울 것이다. 이 때문에 G-7 국가들의 소비는 당분간 둔화된 상태를 유지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제품에 대한 외부의 수요는 제한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2010년도 GDP 성장률은 지난 십년간의 평균치인 6 2/3 퍼센트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정책 입안자들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즉, 단기적으로는 균형 정책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회복 자립 능력이 확실히 될 때까지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이러한 지원 정책들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거나 회계 년도의 자생력에 대한 우려를 낳을 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재정의 균형을 이룩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책 입안자들이 민간 부분의 수요를 평가하고 이 수요가 공공 부분의 수요를 얼마만큼 보완할 수 있을 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제 2장에 언급된 바와 같이 1990년대에 위기를 겪은 일본의 경험은 “회복 징후”가 산업 생산과 수출 부문에서 고용과 국내 민간 수요로 확산되어야만 유지 가능한 회복이 정착화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직까지는 아시아 지역과 해외의 민간 수요가 위축된 상태이며 전망은 결코 밝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은 얼마 동안은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밖의 주요 정책적 과제를 들면 G7 국가들의 수요가 위축되어 있는 새로운 국제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급성장으로 복귀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세계” 속에서 아시아 지역의 장기적 성장 전망은 국내 기반들이 좀 더 역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장요인들을 재조정하는 능력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광범위한 전선에서의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다. 민간인들의 예방적 저축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개선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제 3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 부문과 기업 지배 구조의 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가정의 소비가 기업의 저축을 상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구조 개혁은 생산성을 증가시켜 경제 전반에 걸쳐 자원이 원활하게 재분배함으로써 수출 신장력의 둔화를 보완할 것이다. 끝으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낮은 수준의 당좌 예금 잉여금과 더욱 신축성 있는 환율 관리정책을 수용할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